

紺紙銀字『文殊最上乘無生戒牒』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unsu-Choesangseung-Musaenggyecheop*
Written on Indigo Papers with Silver Dust Characters

趙 秀 珍 (Cho, Soo-Jin)*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 書體 分析 |
| 2. 寫經의 現狀 | 6. 發願文 分析 |
| 3. 表紙畵의 樣式 | 7. 맺음말 |
| 4. 變相畵의 樣式 | <참고문헌> |

< 초 록 >

본 논문은 泰定 3년인 忠肅王 13년(1326)에 제작된 紺紙銀字『文殊最上乘無生戒牒』에 대한 연구이다.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은 인도승 指空이 고려에 머문 2년 7개월 동안 四部大衆에게 無生戒를 설하였다는 『高麗史』의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현존하는 3점의 무생계첩 가운데 妙德戒牒은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이고,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경이 가지는 미술사적 의의는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에 妙德戒牒의 사경 체제와 현상을 살피고, 아울러 다른 고려사경과의 비교를 통해 표지화, 변상화, 서체의 양식적 특징을 밝히고자 했다. 또한 발원문에서는 수계자에 대한 조사와 함께 현존하는 다른 2점의 무생계첩과 비교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이 사경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밝히고자 했다. 무엇보다 指空의 역서로 알려진 文殊最上乘無生戒經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은 14세기 고려의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동시에 이는 전문 사경승에 의해 필사되어 널리 유행하였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이러한 戒牒이 계속해서 발견되길 기대하며 수계자 妙德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후일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要語: 문수최상승무생계, 지공, 묘덕, 표지화, 사경변상화, 사경서체, 발원문

* 대구가톨릭대학교 회화학과 외래교수(picorinal@nate.com)

접수일: 2013년 12월 6일 최초심사일: 2013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2013년 12월 28일

<ABSTRACT>

This paper contains the study on *Munsu-Choesangseung-Musaenggyecheop*(文殊最上乘無生戒牒) written on indigo papers with silver dust characters manufactured in the 13th year of King Chungsook(忠肅王 13年, 1326), which is the third year of Taejeong(泰定 3年). *Munsu-Choesangseung-Musaenggyecheop* is a very important material backing up the record of the History of Goryeo that Chigong(指空), an Indian Monk, taught the religious precept of no life to the four classes of public for two years and seven months during which he was staying in Goryeo. I would say that the meaning in the art history of this buddhist manuscript is very significant as Myodeok-Gyecheop(妙德戒牒) among the three existing *Musaenggyecheop*(無生戒牒) was manufactured in the earliest time and remains in the perfect condition.

Thus, I intended to look into the system and phenomena of buddhist manuscript of Myodeok-Gyecheop and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styles of the cover-page illustration, transformation picture and chirography thereof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 Goryeo buddhist manuscripts. Also, for the prayer, I tried to identify the intrinsic value of this buddhist manuscript by attempting investigation of the author of the prayer and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two existing *Musaenggyecheop*. I wish this kind of Gyecheop to be found continuously in the future, and will make the in-depth research on the author of the prayer a research project in the future.

Key words: Munsu-Choesangseung-Musaenggye, Chigong, Myodeok,
cover-page illustration, transformation picture, chirography, prayer

1. 머리말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은 인도출신으로 고려에 2년 7개월간 머문 것으로 알려진 指空禪師¹⁾의 사상인 無生戒를 기록한 戒牒으로 卷尾에 指空의 手決이 남아있어 指空 자신이 직접 수계자에게 준 것으로 짐작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은 금강산 楡岾寺에 전래된 懶翁王師가 受持한 戒牒(이하 懶翁戒牒이라 칭함)²⁾ 및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 속에서 발견된 覺慶이 수지한 계첩(이하 覺慶戒牒이라 칭함),³⁾ 대구 개인소장⁴⁾으로 優婆夷 妙德이 수지한 계첩(이하 妙德戒牒이라 칭함), 그 외 계첩의 형식이 아니어서 受戒者가 없는 호림박물관 소장 『文殊最上乘無生戒法』⁵⁾ 정도가 전해지고 있다.

현존하는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은 指空이 고려에 와서 四部大衆에게 무생계를 설하였다는 『高麗史』⁶⁾의 기록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며, 당시 指空이 고려

1) 指空과 관련해서는 선학들의 연구 성과가 많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다.

金炯佑, “胡僧 指空研究,” 『東國史學』 제18집(1984. 12), 1-23.

허흥식, “指空의 사상형성과 존재지술,” 『동방학지』 제61집(1989. 12), 51-81.

허흥식, “指空研究의 現況과 補完,” 『淸溪史學』 제12집(1995. 12), 213-228.

許興植,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일조각, 1997), 1-136.

이병욱, “지공의 선사상,”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혜안, 2002), 331-366.

2) 조선총독부, 『朝鮮古蹟圖譜』 제7권, 圖3248-3249 참조.

功德山後學, “懶翁王師의 菩薩戒牒을 보고,” 『佛敎』 제5호(1924. 11), 38-42.

3) 張忠植, “海印寺 金字無生戒法和 義相의 一乘發願文,”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양산: (사)성보문화재연구원, 1995), 43-70.

朴銀仙, “泰定 3年 發願 高麗寫經 『文殊最上乘無生戒法』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4) 올해 4월 은사이신 권희경 교수와 함께 소장자인 경북대학교 여상도 교수택에 방문하여 사경 조사를 하였다. 이 지면을 빌어 연구에 도움을 주신 두 분 교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5) 이 사경은 공민왕 6년(1357)에 제작된 折帖本으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및 『文殊最上乘無生戒法』·『六祖和尚法寶壇經』의 合部이다.

6) 『高麗史』 권제35, 世家 제35, 충숙왕 15년 7월조. “胡僧指空說戒於延福亭士女奔走以聽雞林府司錄李光順亦受無生戒之任令州民祭城隍不得用肉禁民畜豚甚嚴州人一日盡殺其豚.”

사회에 끼친 영향력을 짐작케 해주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妙德戒牒은 기존에 학계에 소개된 바가 있으나 이는 사경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가지고 한 연구이며,⁷⁾ 사경 도판이 소개된 경우도 단편적인 자료에 그친다.⁸⁾ 다행히 이번에 妙德戒牒의 원본을 조사할 기회를 얻게 되어 이 지면을 통해 소개하는 바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妙德戒牒의 현상을 살펴보고, 기존에 소개된 바가 없는 표지와 양식과 더불어 사경변상화의 양식, 사경서체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사경과의 비교를 통해 이 작품이 지니는 고유한 가치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발원문은 현존하는 다른 無生戒牒 2점과 비교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앞으로 연대가 불확실한 고려사경의 연대를 밝히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2. 寫經의 現狀

妙德戒牒(<그림 1>)은 指空이 설한 『文殊最上乘無生戒法』을 紺紙에 銀字로 書寫한 것이다.⁹⁾ 이 사경은 卷尾에 있는 發願文에 의해 泰定 3년(1326) 5월에 제작된 것과 아울러 西天禪師 指空이 優婆夷 妙德에게 授戒한 戒牒임이 밝혀졌다.



<그림 1> 대구 개인소장 紺紙銀字 『文殊最上乘無生戒牒』 1326年

7) 1989년 장충식 교수가 조사하여 그 복사본을 지공연구자 허홍식 교수에게 제공하여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다. 許興植, “指空의 無生戒牒과 無生戒經,” 『季刊書誌學報』 제4집(1991. 3), 141-151.

8) 조선일보, 1995년 3월 24일자 소개.

9) 허홍식 교수는 논문에서 金字寫經이라 하였으나 이는 오류이다.

앞에서 언급한 현존하는 3점의 無生戒牒 가운데 妙德戒牒은 泰定 3년 5월에 제작되었고, 覺慶戒牒은 이보다 3개월 늦은 1326년 8월에 제작되었으며, 懶翁戒牒은 泰定 4년(1327) 2월에 제작되어 妙德戒牒이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다른 2점의 無生戒牒의 모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妙德戒牒은 세로 9.0cm, 가로 6.8cm이며 折帖本을 이룬다. 앞뒤 표지를 제외하고 내지는 모두 12면이다. 제1면에는 문수보살을 그린 변상화가 金泥로 그려져 있고, 제2~12면에 걸쳐 無生戒經의 요약된 내용과 발원문이 銀字로 적혀 있다.

이 사경의 체제는 1면 5행이며 1행 13~15자로 寫成되어 있어 일반적인 고려 사경의 체제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는 사경 크기의 변화에 따른 현상으로 짐작된다.

변상화의 테두리는 金泥의 태선-세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문수보살이 金泥로 그려져 있다. 세부묘사는 정교하고 세련된 필치를 사용하여 화려한 특색을 보여주고 있다.

표지화의 경우 紺紙에 金・銀泥로 蓮唐草文을 표현하고 있는데 필선이 매우 유려한 것이 특징이다.

3. 表紙畫의 樣式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妙德戒牒은 泰定 3년인 충숙왕 13년(1326)에 제작되었다. 동 시기에 제작된 사경표지화의 비교를 통해서 시대적 양식을 밝히고자 한다.

妙德戒牒의 표지화는 紺紙에 金・銀泥로 蓮唐草文을 표현하고 있는데 앞표지화(<그림 2>)의 경우, 가장자리는 은니의 태선과 금니의 세선으로 구획하고 있다. 표제는 金泥의 태선-세선의 방형구획 속에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이라 金字로 적고 있고, 이 방형구획의 상단에는 金泥로 仰蓮을 그리고, 하단에는 金泥로 覆蓮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仰蓮과 覆蓮의 배치는 충숙왕 2년(1315)에 제작된

日本 大乘寺 및 天倫寺 소장 『妙法蓮華經』 7권본 1부(<그림 3>)와 연대미상의
日本 根津美術館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제7권(<그림 4>)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妙德戒牒 앞표지화 <그림 3> 大乘寺 및 天倫寺本 <그림 4> 根津美術館本
표지화, 1315년 표지화, 연대미상

표제 바깥쪽으로는 유려한 필선으로 蓮唐草文을 표현하고 있는데, 화면 한가
운데 1송이의 만개한 연화를 배치하고 나머지 화면은 당초잎과 줄기로 빼곡히
채우고 있다. 연판과 당초잎은 銀泥를 사용하였으며 당초줄기는 金泥로 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려사경 표지화의 경우 세로 길이가 30cm 전후인 것이 대부분이
기 때문에 연화문이 3~4송이 정도 표현되는데, 이 사경은 세로 길이가 9.0cm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이므로 1~2송이 정도만 표현되었다. 또한 당초줄기는
'S'자형의 넝쿨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경의 경우 표제를 중심으로 꺾배
기 형태의 이중 곡선을 이루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상은 다른 고려사경
표지화에서는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경만의 독특한 점이다.

뒤표지화(<그림 5>)의 경우 두 송이의 연화가 상하로 배치되어 있는데, 상단

의 연화는 위쪽을 향해 만개한 모습이며, 하단의 연화는 꽃술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치는 같은 해에 제작된 覺慶戒牒의 표지화(<그림 6>)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표지의 크기에 따른 유사성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覺慶戒牒의 연판은 대단히 간략하고 단순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妙德戒牒과는 차이를 보인다. 妙德戒牒의 경우 覺慶戒牒의 표지화와는 달리 연판이 훨씬 회화적으로 표현되었으며, 당초줄기도 파배기 형태로 크게 이중 곡선을 그리고 있어 도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초잎의 표현도 곡선묘를 사용하여 부드럽지만 반전이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다. 다만 이 사경에서는 심방부분의 세부와 꽃향기의 표현은 생략되어 있다. 앞표지화와 마찬가지로 연화와 당초잎은 銀泥로 당초줄기와 꽃술은 金泥로 그려 포인트를 주고 있다.



<그림 5> 妙德戒牒 뒤표지화



<그림 6> 覺慶戒牒 표지화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轉載)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妙德戒牒의 표지화는 동 시기에 제작된 사경표지화에 비해 연당초문의 표현이 도식적이지 않고 회화적으로 표현되어 유려하고 정교한 필치가 특징이다. 사경 크기가 작아서인지 심방의 세부표현 및 꽃향기 등이 생략되어 있지만, 연판양식에서 한쪽으로 쏠린 듯이 표현되고 연판 끝부분이 뒤로 젖혀진

듯이 그려진 점, 연판과 당초잎의 표현에 銀泥의 사용이 많아진 점, 연판과 당초잎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紺紙의 바탕색이 마치 하나의 윤곽선처럼 보이는 점 등은 충숙왕대 제작된 사경표지화의 양식적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¹⁰⁾

4. 變相畫의 樣式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경변상화는 제1면에 배치되어 있는데, 변상화의 크기는 세로 8.0cm, 가로 6.6cm이다. 변상화의 테두리는 금니의 태선-세선으로 이루어졌고 文殊菩薩坐像이 金泥로 그려져 있다(<그림 7>).



<그림 7> 妙德戒牒 변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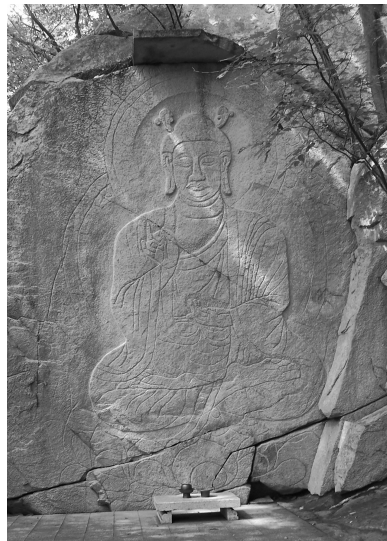
10) 권희경, 『고려의 사경』 (대구: 글고운, 2006), 209-214.

이 같은 테두리 양식은 대부분 金剛杵와 金剛輪의 연속문양대로 장식된 고려 사경 변상화와는 다른 점이지만 覺慶戒牒이나 日本 小浜 개인 소장 『梵本聖觀自在大悲心總持功能依經錄』과 같이 小經의 사경변상화에서 흔히 보이는 특징이다.

이 사경변상화를 살펴보면 文殊菩薩은 연화대좌 위에 左向하고 앉아 있는데, 원형의 頭光과 身光을 지니고 있다. 頭光과 身光은 윤곽선은 선명하게 그리고, 안쪽은 渲染 처리하였다. 머리에는 높은 寶冠을 쓰고 있으며, 목걸이와 팔찌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다. 相好는 풍만한 편이며, 목에 三道는 마치 목걸이처럼 늘어져 있다. 이러한 三道의 양식은 충선왕 2년(1310)에 제작된 日本 鏡神社 소장 水月觀音圖와 충숙왕 10년(1323) 제작된 日本 泉屋博古館 소장 水月觀音圖(<그림 8>)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고려중기 이후에 제작된 석불이나 마애불(<그림 9>)에서도 이러한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림 8> 水月觀音圖, 泉屋博古館 소장
(고려불화 轉載)



<그림 9> 大乘寺 磨崖如來坐像

天衣는 유연하게 끝자락을 휘날리며 연화대와 아래까지 드리워져 있으며, 臺座는 날카로운 仰蓮과 覆蓮의 상대에 八稜形의 중대, 圓形의 하대를 지닌 삼중대와 형식이다. 手印은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약지를 맞대고 무릎 위에 가볍게 올리고 있으며, 왼손은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연화가지를 잡고 있는데 양손은 매우 유려하게 표현되었다. 散花나 光明線과 같은 배경은 생략되고 대좌 부근으로 地雲文만 묘사되었다. 地雲文은 渦文形의 운문을 3~4개씩 그리고, 그 주변으로 稜形의 운곽선을 더함으로써 마치 花文처럼 보이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화문형의 운문은 충숙왕대 사경변상화의 地雲文과 일맥상통한다.¹¹⁾

일반적으로 충숙왕대 사경변상화의 경우 배경에 여백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밀한 세선으로 장식문양이 그려지는 양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이 사경변상화의 경우는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이는 變相의 주인공으로 文殊菩薩만을 등장시킨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無生戒經에 따르면 文殊菩薩은 毘盧遮那佛이 말씀하신 無生戒를 전해 준 보살이다.¹²⁾ 따라서 이 사경의 발원자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변상화에 文殊菩薩만을 그려 넣은 것으로 짐작된다.

文殊菩薩은 지혜를 상징하며, 普賢菩薩과 함께 釋迦牟尼의 좌협시로 구성되어 신앙되는 경우가 많지만 단독으로 신앙되는 경우도 있다. 文殊의 다른 이름으로는 妙德,¹³⁾ 妙音, 妙吉祥 등이 있다. 文殊菩薩은 석가 입멸 후 인도에서 태어나 보살도를 닦았고, 석가 10대 제자들과 왕복문답한 것을 비롯하여 불교경전의 결집에 깊이 관여한 보살이다.¹⁴⁾ 불화에 나타나는 文殊菩薩의 圖像은 머리에는 높은 寶冠을 쓰고 좌상의 경우 結跏趺坐를 하고, 오른손은 說法印을 취하고, 왼손은 연화가지를 든 모습이 일반적이다. 이 사경변상화에서는 文殊菩薩만이 등장하게 되면서 충숙왕대 사경변상화 양식보다는 불화양식을 따르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11) 권희경(2006), 450-454.

12) 『文殊最上乘無生戒法』, “… 是故毘盧遮那親宣 文殊菩薩傳授.”

13) 이 사경의 수계자의 보살명도 妙德이다. 그는 비구니로 출가한 후에도 妙德이란 이름을 범명으로 계속 사용하였다.

14) 권희경, 『불교미술의 기본』 (서울: 학연문화사, 1999), 55-61.

현존하는 無生戒牒의 변상화를 비교하면, 妙德戒牒과 달리 覺慶戒牒의 변상화(<그림 10>)는 제1~2면에 배치되어 있다. 제1면에는 智拳印을 취하고 있는 毘盧遮那佛을 중심으로 좌우에 菩薩이 그려져 있고, 제2면에는 寶卓을 사이에 두고 指空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두 손은 합장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앉아 毘盧遮那佛의 설법을 경청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등장인물은 佛格에 따른 서열 관계를 크기로써 구분하고 있는데, 본존을 가장 크게 묘사하고 보처보살은 본존보다 작게 묘사하고 있다. 指空의 머리 위쪽으로는 寶塔이 솟아 있는 모습이고, 배경은 菩提樹, 光明線, 雲文, 散花, 地雲文으로 빼곡히 장식되어 있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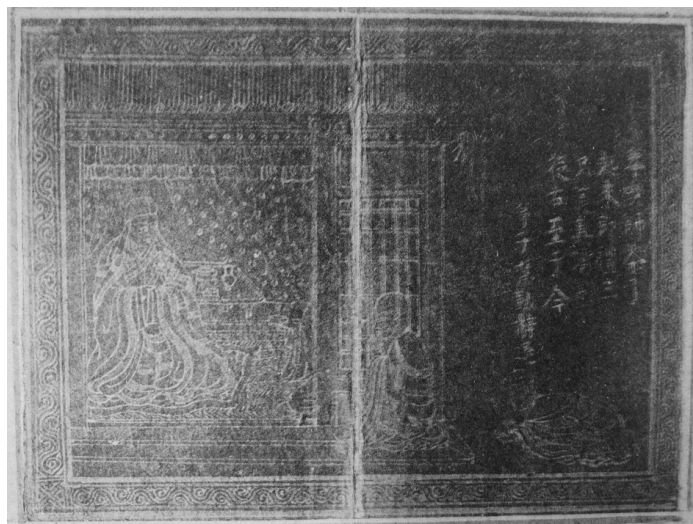
<그림 10> 覺慶戒牒 변상화(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轉載)

覺慶戒牒 사경변상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불보살과 指空의 머리에 청색 안료를 칠한 것이다. 이는 연대미상의 日本 大和文華館 소장 『大方廣佛華嚴經』 제35·36권의 여래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연대 불확실한 고려사경

15) 張忠植(1997), 52-53.

의 편년연구에 중요한 모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懶翁戒牒의 경우 변상화(<그림 11>)가 2면에 걸쳐 그려진 것은 覺慶戒牒과 같지만 변상화의 내용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좌측에 指空으로 보이는 인물이 앉아 있고 그 앞쪽에는 2명의 승려가 앉아 있는데, 1명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치고 있으며, 나머지 1명은 합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 뒤쪽으로 優婆塞로 보이는 인물은 엎드린 자세로 표현되어 있다. 아마도 指空에게 차를 올리고 있는 승려는 懶翁인 것으로 보이며,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변상화는 指空이 懶翁에게 授戒하는 장면을 그린 것으로 짐작된다. 변상화의 테두리는 唐草文의 연속문양대를 이루고 있으며, 배경은 실내장면을 묘사한 듯 화려한 장막으로 장식되어 있다. 3점의 無生戒牒 가운데 유일하게 懶翁戒牒에서만 변상화의 테두리에 장식문양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그림 11> 懶翁戒牒 변상화(朝鮮古蹟圖譜 轉載)

현존하는 3점의 無生戒牒 변상화를 비교해 본 결과 변상화의 내용은 3점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妙德戒牒은 無生戒를 전달한 文殊菩薩만을 등장시키고,

覺慶戒牒은 毘盧遮那佛로부터 指空이 受戒하는 장면을, 懶翁戒牒은 指空 자신이 懶翁 등 고려승들에게 授戒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이처럼 변상화의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경을 제작하는 제작자의 의중에 따라 변상화의 주제 선택이 서로 상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5. 書體 分析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경의 체제는 1면 5행이며 1행 13~15자로 寫成되어 있다. 본문은 銀字로 쓰여 졌고, 상하 8.0cm의 天地單線에 罫線을 넣어 각 행을 구분하고 있다. 이 사경의 字數가 일정치 않은 것은 사경 크기에 따른 변화인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 사경은 寫經體라 하여 楷書가 많이 쓰였으며 상당수 歐陽詢體와 趙孟頫體로 書寫되었다. 歐陽詢體를 선호한 신라사경은 唐의 楷書가 확립된 시기에 唐寫經의 영향을 받은 사경체였고, 고려시대에도 이러한 신라시대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아 歐陽詢體가 성행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이 사경의 서체도 다른 고려사경과 마찬가지로 歐陽詢의 서체를 반영하고 있다. 고려의 팔만대장경은 北宋의 구분장경을 모본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歐陽詢體로 쓰였다. 이렇듯 고려의 장경사업이 歐陽詢體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려국왕발원 사경서체는 歐陽詢體를 근간으로 삼았으며, 고려후기 개인발원 사경서체는 이러한 국왕발원 사경서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⁶⁾ 특히 이 사경의 경우 ‘文’자·‘之’자·‘持’자·‘中’자·‘心’자 등에서는 전형적인 歐陽詢體를 나타내고 있다.¹⁷⁾(<표 1>)

16) 권희경(2006), 132.

17) 『中國法書選』 제31권, 唐 歐陽詢 <九成宮醴泉銘> (東京: 二玄社, 1996), 10-38.

<표 1> 妙德戒牒과 歐陽詢體의 비교

妙德戒牒					
歐陽詢體					

그러나 고려 후기 개인발원 사경서체는 歐陽詢體를 근간으로 하면서도 각 시대에 따라 유행하던 중국 서풍을 받아들임으로써 시대적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데, 특히 이 사경의 경우 고려 전기에 유행하던 顏眞卿體의 특징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 주목된다. ‘生’자의 경우 收筆의 逆入은 顏眞卿의 <多寶塔碑>의 양식과 거의 같다. 이 외에도 ‘入’자·‘時’자·‘於’자·‘爲’자에서도 魯公體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¹⁸⁾(<표 2>)

<표 2> 妙德戒牒과 顏眞卿體의 비교

妙德戒牒					
顏眞卿體					

충숙왕대가 되면 사경서체에 있어 松雪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는데, 이 사경에서도 ‘子’자·‘有’자 등의 갈고리획과 掠劃 등에서는 趙孟頫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行’자의 경우 ‘彳’변의 옆으로 빠진 掠劃이 豎劃에 비해

18) 『中國法書選』 제40권, 唐 顏眞卿 <多寶塔碑> (東京: 二玄社, 1996), 3-11.

『書道全集』 제10권, 中國 唐Ⅲ (東京: 平凡社, 1966), 圖55.

지나치게 길게 표현된 점, ‘亅’번의 豎劃이 곧게 내려와 갈고리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은 松雪體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者’자·‘國’자에서도 松雪體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者’자의 경우 趙孟頫의 <蘭亭帖十三跋>의 양식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¹⁹⁾(<표 3>)

<표 3> 妙德戒牒과 趙孟頫體의 비교

妙德戒牒					
趙孟頫體					

이 사경서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본문 末尾에 계를 수여하는 指空의 이름과 계를 받는 수계자의 이름인 妙德만이 別體로 쓰여 졌으며 이 사경에서 유일한 金字라는 사실이다. 이렇듯 이름 부분에만 別體가 쓰여진 것은 다른 2점의 無生戒牒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찍이 指空의 친필이라 지적된바 있다.²⁰⁾ 특히 妙德戒牒의 경우 別體의 형식이 梵字體와 비슷하게 쓰여 있어 모두 指空의 친필로 보아 무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마지막 부분의 네 글자에서 이 사경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사경의 서체를 살펴본 결과 歐陽詢體의 근간 위에 일부 顏真卿體가 유입되어 들어오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趙孟頫體의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 충숙왕대 유행하던 사경 서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書道全集』 제17권, 中國 元 (東京: 平凡社, 1967), 圖4·圖9·圖18·圖22·圖25.

20) 功德山後學(1924), 42.

6. 發願文 分析

고려시대 사경의 발원문은 고려가 元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충렬왕대부터 <特爲>, <伏爲>로 시작하여 <皇帝萬歲>를 빌고 그 다음 <國王千秋> 혹은 <國王・宮主千秋>를 빌고, 그 아래로 발원문을 적은 후 사경 제작시기와 발원자나 시재자를 제일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다.²¹⁾

현존하는 3점의 無生戒牒은 발원문 마지막 2행의 순서만 조금 뒤바뀌었을 뿐 내용은 모두 대동소이하다. 妙德戒牒의 발원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2>).

<발원문>

皇帝聖壽萬歲
太子諸王壽算千秋
皇后皇妃金枝永茂
國王殿下福壽無疆文武官僚
高遷祿位天下泰平風調雨順
國泰民安
佛日增輝法輪常轉者
泰定三年丙寅五月十五日 牒
如來遣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指空
付受優婆夷妙德²²⁾

21) 권희경(2006), 58-59.

22) “황제의 聖壽는 만세를 누리고, 태자와 諸王의 수명도 천추를 누리고, 황후와 황비는 자손이 왕성하고, 국왕전하는 수복이 무강하고, 문무 관료는 높은 지위에 오르고, 천하는 태평하고, 비와 바람은 순조롭고, 국태민안하고, 佛日은 더욱 빛나고, 法輪은 常轉하기를 원하옵니다. 泰定 3년 丙寅 5월 15일 如來 遣教弟子이며 一乘戒法을 전수하는 西天禪師 指空 / 받아 지니는 優婆夷 妙德.”



<그림 12> 妙德戒牒 발원문

위의 발원문에서 보면 <皇帝聖壽萬歲>에서 <皇>, <皇后皇妃>에서 <皇>, <佛日增輝>에서 <佛>자가 平出되어 있는데, 이는 충렬왕대 이후 개인발원사경 발원문에서 흔히 보이는 체제이다.²³⁾

위의 발원문으로 인해서 이 사경이 泰定 3년(1326) 5월에 제작된 것과 함께 西天禪師 指空이 優婆夷 妙德에게 授戒한 戒牒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발원문 末尾에 계를 수여하는 指空의 이름과 계를 받는 수계자의 이름인 妙德만이 金字로 쓰여 졌는데 이 서체가 본문과는 달라서 指空의 친필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볼 때 사경의 戒牒을 비슷한 양식으로 여러 부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되며 각기 다른 수계자에게 주면서 受戒者의 이름과 手決만 따로 기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閔漬의 『禪要錄』 서문에 의하면 指空은 泰定 3년 3월에 고려에 들어왔다고

23) 권희경(2006), 66.

기록하고 있다.²⁴⁾ 그렇다면 이 사경은 指空이 고려에 들어온 지 불과 2개월만에 제작되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수계자인 妙德이란 인물은 指空을 따르는 열성신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妙德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살펴보면 그는 白雲景閑의 門徒로 58세가 되기에 출가한 定安君 夫人 任氏이다.²⁵⁾ 妙德은 1377년 7월 청주목 興德寺에서 금속활자본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간행하는데 比丘尼로서 출판비용을 시주하였고,²⁶⁾ 이듬해 6월 여주 鷲巖寺에서 청주 興德寺에서 간행한 『直指』와 白雲景閑의 또 다른 저작인 『白雲和尚語錄』을 목판본으로 간행할 때에도 출판비용을 시주하였다.²⁷⁾ 또한 1378년 5월에는 指空의 부도비를 세우는데 檀越로서 시주하였고,²⁸⁾ 같은 해 懶翁慧勤의 門徒인 志先·志守 등과 함께 재물을 희사하여 양주의 潤筆庵을 세우는데 比丘尼로서 시주하기도 하였다.²⁹⁾ 다만 그의 생애와 관련된 정확한 기록은 밝혀진바 없으므로 앞으로 좀 더 자료를 찾아 후일 연구과제로 삼도록 하겠다.

현존하는 3점의 無生戒牒의 발원문을 비교해보면, 覺慶戒牒은 卷尾에 「泰定三年八月 日 / 受持弟子覺慶 / 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 指空」과 함께 梵書의 手決과 落款이 이어진다(<그림 13>). 특히 「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 指空」은 본문과 서체가 달라서 지공의 친필인 것으로 추정된바 있고, 대형낙관은 일종의 부적형태의 금자도장으로 보았다.³⁰⁾

懶翁戒牒은 卷尾에 「泰定四年二月 日牒 / 付弟子懶翁慧勤 / 如來遺教弟子傳授一乘戒法西天禪師指空」과 함께 落款이 이어진다(<그림 14>). 이 역시 指

24) 許興植(1997), 각주 96 참조.

25)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서울: 혜안, 2005), 38.

26)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刊記. “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 興德寺鑄字印施 / 緣化 文人 釋璨 達湛 / 施主 比丘尼 妙德.”

27) 이세열, “直指와 비구니 妙德에 관한 연구,” 『중원문화논총』 제4집(2000), 6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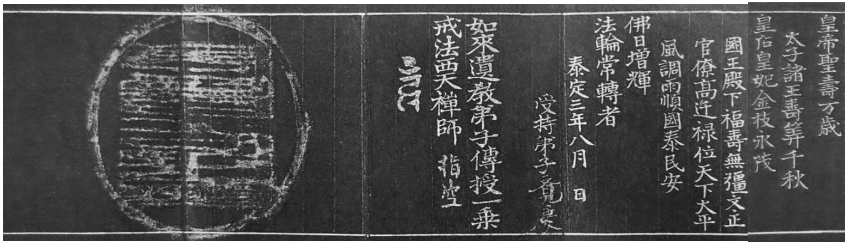
28) 許興植, “指空의 原碑文과 碑陰記,” 『李箕永博士 古稀紀念論叢』(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1), 458.

29) 이세열(2000), 각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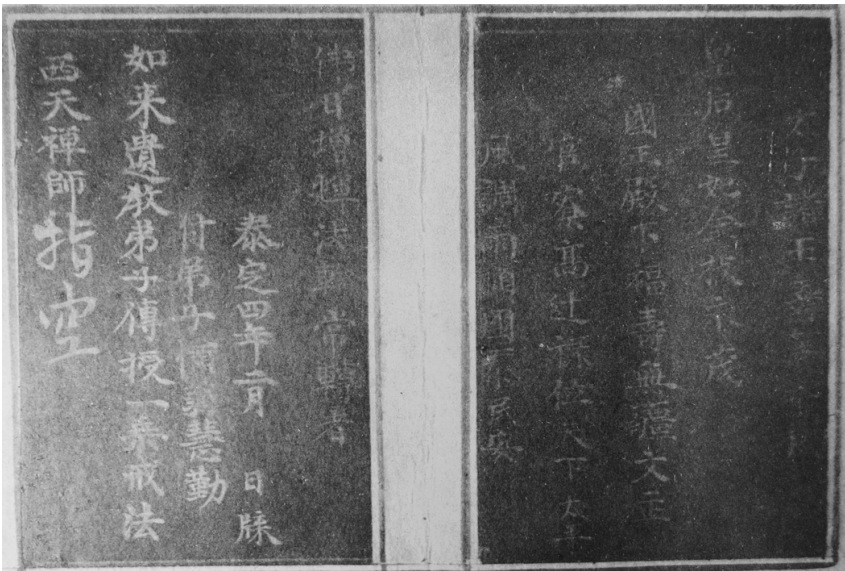
30) 장충식(1995), 59.

空은 別體로 쓰여져 있어 指空의 친필로 지적되었다.

覺慶戒牒과 懶翁戒牒은 제작년도 다음에 受戒者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마지막에 指空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 妙德戒牒과는 순서가 다를 수 있다. 그 점을 제외하면 발원문의 내용은 3점의 無生戒牒 모두 동일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 覺慶戒牒 발원문(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 轉載)



<그림 14> 懶翁戒牒 발원문(朝鮮古蹟圖譜 轉載)

7. 맺음말

이상에서 紺紙銀字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의 現狀을 살피고, 표지화·변상화·서체·발원문에 대해서는 다른 고려사경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無生戒牒과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볼 때, 妙德戒牒은 小經의 袖珍經 형식이기 때문에 크기에 따른 변화양상은 보이고 있으나 충숙왕대 고려사경 양식을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경의 체제는 1면 5행이며 1행 13~15자로 寫成되어 있어 일반적인 고려사경의 체제와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는 사경의 크기가 세로 9.0cm, 가로 6.8cm 밖에 되지 않는 小經이므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字數가 일정치 않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현존하는 다른 無生戒牒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둘째, 표지화 역시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다른 고려사경 표지화 양식과는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표제의 장식문양이나 연당초문 양식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충숙왕대 고려사경 표지화 양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妙德戒牒 변상화의 경우 文殊菩薩만 등장하고 있는데, 다른 고려사경 변상화에서는 이런 예를 찾을 수 없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地雲文 양식은 충숙왕대의 특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 시대적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변상화의 주제표현에 있어서 현존하는 다른 2점의 無生戒牒 변상화와 비교한 결과 3점 모두 다른 주제를 선택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일한 경전의 변상화가 이처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경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주제선택이 서로 상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변상화의 화풍은 도식화되었다기보다는 회화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러한 특징은 충숙왕대 불화의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妙德戒牒 변상

화는 배경을 散花로 채우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둔 점에서 회화적인 느낌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여섯째, 이 사경의 서체의 경우 歐陽詢體의 근간 위에 趙孟頫體의 특징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어 충숙왕대 유행하던 사경 서체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일곱째, 발원문의 경우 발원문 末尾에 계를 수여하는 指空의 이름과 계를 받는 수계자의 이름인 妙德만이 金字로 쓰여 졌는데 이 서체가 본문과는 달라서 指空의 친필로 추정하였다. 이러한 형태로 볼 때 사경의 戒牒을 비슷한 양식으로 여러 부 만들어서 각기 다른 수계자에게 주면서 受戒者의 이름과 手決만 指空이 따로 기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無生戒牒의 수가 매우 적은 현실 속에서 제작시기가 가장 오래된 妙德戒牒은 다른 無生戒牒의 모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상태도 完存하므로 문화재 지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功德山後學. “懶翁王師의 菩薩戒牒을 보고.” 『佛教』 제5호(1924. 11). 38-42.
- 權熹耕. “韓國寫經 書體와 書者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2집(1996. 6). 413-463.
- _____.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6). 7-50.
- _____.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1).”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12). 5-59.
- _____. “年代 불확실한 高麗寫經의 表紙畫에 관한 연구(2).” 『書誌學研究』 제25집(2003. 6). 17-59.
- _____. “고려후기 개인발원 고려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제31집(2005. 9). 153-200.

- _____. “年代 불확실한 고려후기 사경변상화의 양식분석.” 『書誌學研究』 제32집(2005. 12). 443-479.
- _____. 『고려의 사경』. 서울: 글고운, 2006.
- 김경호. 『韓國의 寫經』. 서울: 도서출판 고륜, 2006.
- 金炯佑. “胡僧 指空研究.” 『東國史學』 제18집(1984. 12). 1-23.
- 南權熙. 『高麗時代記錄文化 研究』. 청주: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朴桃花. “高麗金銀泥寫經畫의 樣式考察.” 『考古美術』 184(1989. 12). 19-37.
- _____. “高麗後期 寫經變相圖의 樣式變遷.” 『高麗, 영원한 美』. 서울: 호암미술관, 1993. 205-209.
- 박상국. 『사경』. 서울: 대원사, 1990.
- 박은선. “泰定 3年 發願 高麗寫經 『文殊最上乘無生戒法』에 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4.
- 이세열. “直指와 비구니 妙德에 관한 연구.” 『중원문화논총』 4(2000). 67-95.
- 이병욱.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서울: 해안, 2002.
- 張忠植. “海印寺 金字無生戒法과 義相의 一乘發願文.”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복장유물의 연구』. 양산: 정보문화재연구원, 1995. 43-70.
- 조수진. “『妙法蓮華經』 寫經變相畫의 比較 研究 - 東亞細亞 三國을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 許興植. “指空의 사상형성과 존재저술.” 『동방학지』 제61집(1989. 12). 51-81.
- _____. “指空의 無生戒牒과 無生戒經.” 『季刊書誌學報』 4(1991. 3). 141-151.
- _____. “指空의 原碑文과 碑陰記.” 『이기영박사 고회기념논총』.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1991. 444-461.
- _____. “指空研究의 現況과 補完.” 『淸溪史學』 제12집(1995. 12). 213-228.
- _____.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서울: 일조각, 1997.
- 黃壽永. “高麗寫經의 研究.” 『考古美術』 180(1988. 12). 51-67.
- 황인규. 『고려말·조선전기 불교계와 고승 연구』. 서울: 해안, 2005.